

#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구성 장기화 우려

### 시민권익위 제시안 광주시가 거부 위원회 구성 무산 의제·공론 방식도 입장차 여전 출범까지 진통 불가피

10일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결국 무산되면서 공론화작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와 시민모임을 중재해온 시민권익위원회의 제시안을 시가 거부하면서 향후 논의 방향도 불투명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광주시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 측은 공론화 위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다 공론화 위원회의 의제, 공론 방식 등을 두고도 여전히 입장차가 커 공론화위원회 출범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와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시민모임 등은 이날 오전 제7차 모임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모임에서 광주시와 시민모임 측은 중립적인 인사 7명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이 추천한 각각 2명씩의 위원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시는 중립적인 인사 7명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반면, 시민모임 측은 양측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 각각 2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방안은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내놓은 안이다.

시 관계자는 "중립적인 인사 외에 위원이 포함되면 진영논리에 붙어 지금까지와 똑같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비효율적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이후 시와 시민모임 간 의견을 조율해온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의 제시안을 시가 거부하면서 최 위원장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의 의제, 공론 방식 등에도 시와 시민모임 간 의견 차가 커 공론화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기능을 하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 측은 "중립 위원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공론화위원회 출범 전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와 시민모임 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시민모임 측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 방식인 '속의조사'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시는 속의조사가 대표성이나 책임성,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당초 포함되기로 했던 시의원 2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의회 일각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을 좁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더라도 이들이 공론 방식을 결정해 이를 실행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논의의 틀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준비 모임도 다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수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는 지난 7일 함평군의회에서 제235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9월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여수시의회 서안석 의장 대표발의로 여수시의회 서안석 의장 대표발의로 상정된 건의안은 올해 여수사건 70주기를 맞아 그동안 여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

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제안됐다.

의장회는 앞으로도 사·군간 상생협력의 공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필구 회장은 "화합과 신뢰, 소통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원 기자 jylee@kwangju.co.kr

## 광주시 1160억 투입

### 노후 하수관로 50km 교체

광주시가 도심 도로 땅꺼짐을 예방하기 위해 1160억원을 투입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50km에 대한 교체·개량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하수도 관 342km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1단계로 16.83km와 부분 보수가 필요한 1531곳 등 긴급 보수 물량에 대해 260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부터 2020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노후하수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취안저우시를 찾아 왕용리 취안저우 시장과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 광주시-중국 취안저우시 문화·경제교류 협력 강화

### 이용섭 시장, 정율성 음악제 참석 취안저우 시장 면담

광주시와 중국 취안저우시가 '정율성'이라는 공감대 속에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9일 2018정율성 성음악축제 참석을 위해 취안저우시를 방문, 왕용리 취안저우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와 취안저우는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첫 교류도시로 특별한 인연을 맺은 지 5주년을 맞아 이곳 취안저우에서 정율성 음악축제가 열리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며 정율성음악축제를 계기로 양 도시 간 교류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는 예향의 도시라 불

리며, 지금은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취안저우도 중국 내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양 도시가 협력하면 문화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왕용리 취안저우 시장은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정율성 선생의 정신이 함께 하고 있다"며 "정율성 선생의 고향인 광

주와 우정을 쌓으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 도시 간 교류를 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이 시장과 왕용리 시장은 광주의 주력 산업인 전자와 LED사업의 취안저우시 진출, 취안저우의 주력 산업인 의복과 석유화학 분야 등의 광주 진출 등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취안저우시 이원희 대극장에서 열린 2018정율성음악축제에 참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정치인 금품 제공 등 추석 불법행위 특별단속

### 광주시·전남도 선관위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초대 대표이사를 공모한다. 재단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조직을 격상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전남문화관광진흥과 남도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할 초대 대표이사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며, 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임원 겸직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원서류는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심층 면접을 거쳐 복수 후보자를 이

사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추천한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적임자를 최종 임명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학계, 문화, 예술, 관광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투명성을 높이려고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면접 질문을 추천받기로 했다.

질문 내용은 11일부터 30일까지 전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jact.or.kr)에 등록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알아차림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마음과 명상 이야기, 감정탐색, 마음 들여다보기, 그저 이해하는 깊은 경험,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춤 테라피, 바디스캔, 하타요가 등	45시간	20명

※ 강사 :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 교육기간 2018. 10. 02(화) ~ 2018. 11. 22(목)
-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추후 안내)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여대관 1층 3115호 평생교육원  
전화 :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잡스(195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